



주머니가 필요없는 옷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

고종목이란 시인이 있다. 평생 옷 짓는 것을 업으로 했던 시인이다. 바느질을 하다 시 한 수를 읊었다. 배넷 저고리와 수의란 시인데 이렇다.

“배넷 저고리엔 주머니가 없다/수에도 주머니가 없다/주머니가 왜 있어야 하는지.../그 쓰임새도 모른다/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부끄러움도 모른다/배넷 저고리는 제 손으로 입을 줄 모른다/수에도 제 손으로 입을 수가 없다/양쪽 손들이 다 비어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태어나고 죽음을 이르는 과정에서 주머니가 없다는 뜻인데, 태어남과 죽음 또한 자의적인 소망이나 욕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것과 일치한다. 이에 비해 살아서 자의적으로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스님네들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속세의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 행거기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쳐서 패가 망신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의 삶이 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목숨을 걸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속세의 일은 속인들의 일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더러는 스님네들의 주머니도 심심찮게 말썽을 일으키니 안스럽다. 스님들은 청빈한 수도자의 자세로 속인들을 교화해야 한다. 스님들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부처님과 만나는 사실을 통찰한다면 주머니가 있어야 할까 없어야 할까 하는 해답은 명료해진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없겠지만 좀 넓게 살피고 깊게 살펴 주머니가 없거나 투명한 주머니를 차는 스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욕망을 채우는 주머니는 승과 속을 가릴 것 없이 추한 것이다.

통허 스님의 이웃돕기 '사경전'



세계불교미술대전에서 특선까지 했던 대구 보현사의 통허 스님이 12일까지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사경전'을 연다. 홈페이지(sunnyum.or.kr)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쓸 예정이다. 스님은 평일들을 11년간 보살펴 왔고 뇌성마비 장애인 40여 명을 돌보기도 했다. 3년 동안 보현사에서 매일 점심때 400여 명이나 되는 노숙자들에게 끼니를 제공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장군축마

군불교위원회 비정규직 일방적 해고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해 말 포교사단 직원 4명을 권고사직 시킨 데 이어 이번엔 군불교위원회 실무자에게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씁쓰레하게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처우에도 '신심' 하나로 일해 온 이들이다.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불교계에서조차 사람을 합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얼마 전 친구 둘과 유럽 여행을 함께 한 적이 있다. 친구들은 보세구역으로 들어서자마자 면세점으로 가서 조니 워커 블루 세병을 샀다. 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꽤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술 박스에 큰 병 하나와 작은 병 하나가 들어 있어서 모두 여섯 병이 되었다.

독일 공항에서는 1인당 한 병씩만 소지할 수 있다는 나의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속아, “뺏속에 넣어가지고 가는데 시비 걸지는 않겠지?”라며 우리는 기내에서 작은 3병을 모두 마셔 버렸다. 술을 싫어하고 많이 못 마시는 나로서는 짧은 시간에 독한 술을 세 병씩이나 마셔야 하는 강제된 행운이 얼마나 행복할지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술꾼이 아닐지라도 위스키가 취하도록 마시거나 벌컥벌컥 마시는 술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귀국길에 인천공항 세관에서 발생했다. 조니워커 블루 2병을 들고 나가던 친구가 세관원에게 호출되어 수십만 원의 세금을 물었던 것이다. 물론 술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저런 고급 물건을 많이 사온 탓이 컸지만 즐거워 할 여행이 그 일 때문에 아주 불쾌하게 끝나고 말았다.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건 세계



불자 세상보기

구승회 교수 동국대 · 윤리학

술에 절어 병든 사회

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계산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최근까지 술 소비량 세계 2위라는 통계가 유력하다. 작년 한해 우리 나라에서 500ml짜리 위스키 약 5400만병이 팔렸으며, ‘발렌타인’ 17년산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35.7%를 한국 사람들이 마셔버렸다고 한다. 어린애를 포함해서 전 국민이 일년에 위스키 한 병 이상 마신 셈이다. 소주, 맥주 등을 포함시킬 경우 국민 한사람이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신 꼴이라는 국제통계도 있다. 어린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술을 못 마시는 노

약자를 제외하면 건강한 한국인은 일년 내내 술에 절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IMF 금융위기 같은 국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은 약한 술 ‘삼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려서’가 아니라, 독한 술 위스키에 취해서 저지른 일인지도 모른다.

작년 말에 시사 주간지 타임은 “한국은 비쌀수록 잘 팔리는 세계 위스키 시장 새로운 희망”이라는 기사를 내 보낸 적이 있다. 기사는 한국 사람들이 위스키를 많이 마신다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위스키 시장의 붐’이라는 뉘앙스

로 일관했다. 관광 시장에서도 한국 관광객은 붐이다. 해외의 명품 시장은 언제나 한국인들로 붐빈다.

학문 시장도 마찬가지다. 구미의 학자들 사이에는 한국이 물 좋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을이면 이런 저런 학회와 단체들이, 학문적 명성에 상관없이 아무나 불러들이고 엄청난 강연료를 지불한다. 그리고는 본전을 뽑겠다는 생각은 안하고, 주최처나 초청기관의 홍보성 과시용으로 전용된다. 주최측의 권력이 클수록 이런 경향은 두드러진다.

위스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시기 위해 위스키를 사지 않는다. 인사하고 과시하고 김광규의 시 구절처럼 “적잖은 술과 안주를 남긴 채, 서로 달랠라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지”는, 그냥 얼굴 한번 보는 자리에 귀책을 갖추기 위해 위스키를 산다. 권력이 큰 집단의 모임일수록 비싼 위스키가 많이 남는다.

조니워커 블루가 그렇게 좋은 술 인줄도 모르고,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그 술 두 병을 조카에게 그냥 쥐 버렸다. 그 피 같은 술을 말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문화유산 관리 정책 토론 지상중계

“‘광의의 문화유산’으로 개념 확대해야”

문화 NGO 단체인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문화유산위원회(위원장 강찬석)는 7일 ‘국가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개혁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김정동 목원대 건축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문화재 전문가 11명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문화연대 측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가 박물관,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두드러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밝혔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통합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국가 전체의 문화유산 정책 차원에서 포괄적,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화재에 대한 정책의 흐름이 발전에서 활용까지 연속되며 상호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장호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역시 “중앙정부 조직을 국가유산 총괄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현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의 계승, 창조, 활용이 문화부의 예술, 문화산업, 관광정책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데 이러한 연계가 약화된 측면은 없는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국장은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정체성은 문화재청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는 안 된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박물관은 활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조직을 개편하고 정부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통합문제 이견대립 전문인력 확보·공조 네트워크 구축 필요

며 통합을 반대했다.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도 “한 나라의 대표적인 박물관은 독립기관화, 위상강화가 국제적 추세”라며 이를 거듭했다. 정중수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은 “문화재청은 보존·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정책 행정기관이고 자체

사업보다 보조금·지원금 위주의 문화재 보호 정책이 강하다”며 “보조금·지원금 위주의 문화재 보호 정책 경향 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문화 향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박물관 고유 기능은 물론 생산력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황기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집행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각각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 개념의 재정립 기조 발제를

맡은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라는 용어는 단순히 재산가치가 있는 재물을 말하는 편협한 용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토론회에서 허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문화팀장 역시 “고고 미술사적 측면의 협의적으론 해

석하지 말고 인류학, 환경학, 인문사회적 접근으로 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근 문화재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래된 그대로 ‘선조들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문화재’라 명명함으로써 용어상으로 재화적 가치가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며 “정신적·전승적 가치까지도 포괄하는 ‘유산’ 개념을 도입해 ‘광의의 문화유산’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타 이승빈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네트워크를 통한 고급 문화재 행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나의 조직이 비대화되는 것보다는 각각의 조직의 장점을 살린 네트워크 구

조 형태의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근 문화재기획과장은 “정부 각 기관은 물론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공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건 문화재연구소장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 활용과 관련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전문문화유산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고, 전문인력에 의한 문화재 정책이 수립, 집행되는 시스템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호수 문화재전문위원은 “공무원 직제에 ‘문화재’ 신설을 검토하는 등 문화재 행정 전문가 양성도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문화 NGO단체인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는 7일 ‘국가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개혁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활인천역자(活人天役者)의 오행(五行) 능력을 단번에 고차원으로 인도하는 육임서(六任書)안내

- 사주(四柱) 10년을 공부해도 육임(六任) 3개월만 육임기의 판단능력을 띠를 수 없습니다 -

육임서(六任書)안내

활인천역자의 필수서! 귀신·산소탈·부정비밀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고, 그해소법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비기서! 이 책은 3년간 정화도가 검증되었습니다. 이 책은 공부않고 볼 수 있고 시간만봐서 말하는 책입니다. 넉넉한 살림이 들어있습니다.

육임신수비결 250,000원 753페이지

아주 쉽게 보아, 큰행사나 참례하는 자라는 많은 신도들을 1년내내 깨어 있게 할 수 있는 정확한 비서!

정초에 보아, 신도카드에 붙여두고 개개인의 월별 길흉에 따라 직분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비서!

이 책에도 살림살이가 들어 있습니다.

육임강의록 300,000원 1663페이지

「육임법안한국육임학회」가 주요요지에 설치한 「육임학당」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육임공부의 정통서! 쉽고, 체계적으로 되어있어 독학할 수 있도록 된 보고장서! 특히, 형이상법(形而上法)편이 백미입니다.

육임비밀의정 900,000원 28개

「육임학당표사축」제1기강의가 편집없이 그대로 수록된 육임이정표!

육임강의록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회귀품!

예언과정비밀수정본원본CD 2,000,000원 1개

(원화) 시간만 특치면 수정본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음순서 시간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육임학당표사축 강의안내 1,500,000원 112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육임공부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활인천역자의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3개월 52시간 수강으로 육임비밀을 자신있게 펼칠 수 있습니다. 등록비는 1백5십만원이며, 육임학당표사축 교재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정기적으로 강연합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
“
”

국회대 오가피 제배자 성 광 수氏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아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회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2004